

농업정책자금 '눈먼돈'? 부적격 대출 '전남 최다'

4년간 538건 102억 '2년째 증가'...전국 3312건 공장 짓고 펜션 사업 활용하고...5건 중 1건 '유용'

농업인들에게 농가경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 사례가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5건 중 1건 꼴로는 대출금을 쓸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였다.

7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16~2019년) 전남에서 외부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적격 농업정책자금 대출은 총 538건, 102억7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전남 부적격 대출 건수는 전체(3312건)의 16.2% 비중을 차지했으며,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남에 이어 경북(425건), 전북(416건), 충남(400건), 경기·인천(364건), 강원(333건), 경남(305건), 충북(216건), 제주(113건), 대구(45건), 대전(38건), 부산(35건), 세종(28건), 울산(24건), 서울(17건), 광주(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부적격 대출은 2년 연속 증가할 뿐더러, 이 기간 동안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아왔다.

전남 농협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은 지난 2016년 말 212건(44억3000만원)에서 이듬해 93건(12억8300만원)으로 절반 줄었지만, 2018년 109건(18억7700만원), 2019년 124건(26억4400만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6~2017년 부적격 대출이 한 건도 지적되지 않았지만, 2018년 13건(2억3100만원), 2019년 2건(3억2300만원)이 적발됐다. 특히 2019년은 2건만 적발됐어도 건당 억 단위 부적격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 간 전국 부적격 대출 3312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니 사업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1494건(424억원)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5건 중 1건 꼴(20.7%·685건/435억원)로는 대출금 용도를 유용한 경우였다. 부도 및 사업 포기는 34.2%(1133건/150억원)로 뒤를 이었다.

부적격 대출의 귀책 원인을 따지면 채무자 잘못이 54.8%(1816건·585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농협 귀책은 44.2%(1464건·414억원), 행정기관 0.96%(32건·11억원) 순이었다.

농가경영에 쓰라고 빌려준 정책자금을 유용한 사례를 보면, 후계농업인이 농지구입자금을 대출 받

■전남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단위:건)



은 뒤 일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거나, 귀농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구입했지만 그 집을 다른 이에게 매도하거나 펜션 사업에 활용하는 등 부정 수급한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37.41 (+10.33)
↑ 코스닥	973.22 (+4.59)
금리(국고채 3년)	1.181 (-)
↓ 환율(USD)	1116.30 (-3.30)

경우 등이 있었다.

대출기관 측에서도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심사 때 영농 증빙서류를 잘 확인하지 않거나, 영농조합법인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김승남 의원은 정확한 자금심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적격 대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경영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농협 심사시스템이 연계돼야 하고, 채무자가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서홍(앞줄 왼쪽) 농협 전남본부장 등이 지난 6일 함평 양파 농가에서 수확을 돕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코로나에 매출 '반토막'...전남 버스업계 도산 위기

지난해 3월~올 2월 매출 1121억 줄어...취약노선 지원책 서둘러야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외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자 등 정부의 방역조치가 길어지면서 전남지역 버스업계가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7일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약 1년간 전남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8%(1121억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외버스의 경우 전년 대비 56.3%(872억원)나 감소했으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각각 65%, 69%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업계의 어려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도가 코로나19

에 따른 취약노선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조만간 운행 중단 사태 등 도민들의 불편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버스업계는 서민들의 교통편의 보장과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30~40% 감축운행과 운수종사원의 유·무급 휴직 등 운수비용을 절감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감축운행에 따른 운수종사원의 실질적인 인건비가 30%이상 감소되고, 이마저도 지금이 어려운 처지에 몰리는 등 한계에 직면해 노선버스 운행 중단 현실화도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 측면에서 유발된 사회적 손실을 버스업계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지난해 전국 각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의 인건비지원 등을 위해 운수업체에 특별 지원된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도 120억5000만원, 경북도 104억원, 충북도 90억원, 강원도 70억원, 전북도 26억5000만원, 경남도 25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남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노선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버스업계 관계자는 "지역민의 발이 되어주는 노선버스 운행중단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자체의 '코로나19에 따른 취약노선 지원'에 기밀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전남도가 운수종사원의 인건비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지원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농촌 일손 돕기 나서

이달 중 '영농지원 발대식'...농기계 수리봉사·마을환경정비 등 병행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일손 돕기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지난 6일 영농인력이 부족한 함평 양파 수확농가를 찾아 조생 양파수확 일손 돕기를 했다.

지역본부 임직원과 농협 함평군지부, 나비골농협 등 농협 임직원과 고흥주부모임, 농기주부모임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범국민적인 농촌 일손돕기 분위기 조성 위해 '영농지원 발대식'을 이달 중 개최할 계획이다.

발대식 이후에는 유관기관·봉사단체 등과 합동 일손 돕기, 농촌마을 환경정비, 농기계 수리봉사 등

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 31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활용해 농업인들이 적기에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 유휴인력 중 농업부문 일자리에 참여 의향이 있는 이들로 인력 집단(풀)을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대체할 계획이다.

일손 돕기에 동참한 박서홍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이 인력부족 문제로 매우 걱정이 많다"며 "농협은 임직원 일손돕기, 농촌인력증개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에 원활하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전남중기청, '혁신바우처' 참여 중기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8일까지 '2021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일반 바우처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회생,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바우처'와 '재기컨설팅 바우처'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컨설팅 분야 중 3개(탄소중립 경영혁신·융복합·산업안전)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재기컨설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을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 바우처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며,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다. 단, 지난해 사업에 선정돼 수행 중인 업체 중 바우처 잔액을 보유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지역주력산업과 소재부품전문기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은 해당 중빙서류 제출 시 서면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또 1년간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6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수행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성태근)은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지역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FTA활용 지원을 위해 광주본부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발급신청 예정일, 신청사유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문화신협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협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 1644-7990

<p>문흥본점 266-4150</p> <p>양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 528-4150</p> <p>매곡지점 572-4150</p> <p>첨단지점 576-4150</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동광주지점 264-4150</p>	<p>광주본점 266-4150</p> <p>양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 528-4150</p> <p>매곡지점 572-4150</p> <p>첨단지점 576-4150</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동광주지점 264-4150</p>
--	--